

<2025년 2월 19일 수요말씀>

육과 혼과 영

본 문 :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신비한 정신 생각 세계와 혼의 세계’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육과 혼과 영’ 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신혼골수를 쪼개어 흠 없고 온전하게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지옥이나 악의 영계에 간 영들을 보면,
근본은 자기 생각 마음을 잘못 하여서

그곳으로 간 것이다.

자기 행위가 자기 길을 가게 한다.

-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따라 행치 않고

자기 주관 고집 교만이 체질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니 자기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넘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을 매일 살피며 잘해야 잘된다.

잘 안된 것은 제대로 못 해서 그러하다.

간혹 뜻이 있어 안되기도 한다.

자기 건강도 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고

각종 것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별로 관심 없이 조심 안 하고 살아가다가

한계를 넘어서 병들어 스스로 고통받는다.

나중에는 병원으로도 안 되니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해야

그 위에 하나님과 구원자 역사로 구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받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더 잘되어 굳건하게 된다.

- 특히 영의 것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수고하고 애써도 그 효력이 없다.

아담도 하와도 그러하였고, 가인도 그러하였다.

육도 영도 하나님 주권권 안에서 역사다.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꾸준히 의를 행한 자는

모두 주 안에서 생명의 이상 세계의 삶을 살아간다.

○ 영의 세계의 것은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고로 흔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없다고 말들 한다.

그러나 살아가는 마음과 그 삶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 영의 형체가 변화됨으로 산 영이 되어

빛을 내며 살아간다.

마음 천국이다. 삶의 천국이다.

반면 하나님을 벗어난 자는 마음 지옥이다.

그 영이 흑암에서 어두운 영이 되어 살아간다.

어두운 만큼 고통을 받는다.

육이 속한 주권권만큼

영도 육도 매일 차원대로 행위대로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할 일 많고 미루고 행치 않으시는 법이 없다.

그날그날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행한 그 행위대로

대해 주시고 처리하신다.

행위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이 그들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신다.

최종 결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는 자는 집을 건축하다 중단한 자와 같다.
고로 그런 영계로 가게 된다.
자기 행실 따라 공적 따라 그에 따른 영계에 간다.
자기 행한 것을 자기가 받는다.

세상에서 같은 종교 교파를 믿으며 살아가도
행위대로 갈려 간다.
그 나라에 가서 각자 그 위치에 산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죽도록 충성하여라.
마음도 행실도 진실로 참으로 행해야만
영이 최고(最高)급으로 변화가 된다.

- 신령함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라.
수시로 자기 육과 영을 보고, 혼도 보아라.
보면서 더 육이 행하여라.
거울을 보면서 단장하듯이
영계 거울, 영과 혼을 보면서 육신이 맞춰 행하는 것이다.

- 하나님은 역사를 펴실 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점점 차원 높여 뜻을 펴 오셨다.
하나님 자신도 시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영적으로 나타나시고 영적으로 인도하셨다.

종교가 육만 중심하면 하나의 자기 마음 수양에서 끝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 동안 마음 생각의 혜택만 보고 끝난다.
이는 마치 우상 종교의 삶과 같다.

영적인 것을 중심하고 육도 신령한 몸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낸 자와 일체 되어 말씀 듣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로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야 육이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다.
행함으로만이 소원이 이뤄진다.

- 과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창조 목적 사랑의 삶을 살면서
행하여 얻은 것을 보아라.

확신이 오지 않느냐.

그 희망의 터전 위에서 더욱 힘과 은혜를 덧입고
믿음 굳건히 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믿는 것은
과거에 행하여 얻은 것을 보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로 지금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를 모시며 사는
섬김과 사랑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라.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이다.

이를 위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평안이 너희 모두에게 충만하리라.

- ◎ 일생 행하여 보아도 행한 것만 이루어졌다.

행치 않은 것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앞일도 뒷일도 그냥 그대로 있다.

만일 자기는 행치도 않았는데
환경이 스스로 행하여 제 맘대로 된다면 무서운 일이다.
해 놓은 것도 제 맘대로 변하면 무서워 잠도 못 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마다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만 되게 창조해 놓으셨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상 받아
육신의 일도 신앙의 일도 해야 한다.

- 육신에 속한 일을 안 하면 평생 그냥 그대로 있다.
영의 일도 안 하고서 육신 죽어 영계에 가 보아라.
영이 사망으로 가 있고,
거할 곳도 없어 광야에 들짐승같이 다닌다.
육신이 영위하며 집을 짓지 않아서다.

그러므로 육신이 육신 위해 필요한 일 하듯이,
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하여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 이 시대에 해당하는 영의 집이 지어져 있다.
- 그리고 천국도 가고,
- 자기 행위 따라 영도 빛이 나고 변화되어
-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 속에 살아간다.

안 하면 영도 혼도 육도 변화가 안 되고, 환경도 변화가 안 된다.

○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것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시험 보는 것과 같이 경쟁률이 높다.

흑암에 가면 육이 겪는 고통의 천만 배 고통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고통 받으면 못 견디지 않나.

영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크다. 영원히 받는다.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받는 이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 생각만 한다.

천국에 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오직 이상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고, 이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 많이 안 뽑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좁은 길에 가물가물 겨우 한 명씩 온다.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다.” 하셨다.

○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

선생, 산에서 그리 몸부림쳐 시대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

따라오다가 실패한 자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이라고 한 자들이다.

선생이 직접 말씀 전하는 것이 크지만,

지금 글로 써서 전하는 이 말씀도 크다.

말씀을 전할 때, 큰 능력과 권세가 나간다.

그냥 보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선영계에 간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 영하 15~20도 되면

얼음이 뚝뚝 얼어 차가 가도 깨지지 않는다.

영하 5도 정도 되어 언 얼음은

겨우 어린아이가 보고 겁내 하는 정도다.

마음 강도가 크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 강도, 마음 강도에 따라 신앙 운명이 좌우된다.

깨달아라.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깨달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절대 깨달아야 한다.

선생은 65년 동안 남의 일 안 하고, 이 일만 했다.

14세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산에 기도하러 다녔다.

선생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며 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며
행하여라.

혼자 행하기도 하고, 뭉쳐 할 일은 뭉쳐 크게 하여라.

그래야 모두 월명동같이 크게 얻고, 청중이 같이 쓴다.

사탄들도 뭉쳐서 하니, 우리도 뭉쳐서 해야 싸워 이긴다.

세상 악들도 그러하다.

◎ 꿈은 거울 같다.

육신이 행위대로 거울에 비취듯이
 육신의 행위가 그대로 혼의 세계에 비취어 보인다.
 고로 거울 보고 단장하듯이
 혼과 영을 보면서 육신을 단장하여라.

또한, 말씀이 거울과 같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육신을 단장하여야 한다.

성경에 땅에서 육이 썩은 행실을 하면
 영도 썩은 행위 한다고 하였다.
 육이 게으르면 혼도 게으르게 보인다.

육이 열심히 하면,
 - 혼도 영도 열심히 하고, 좋은 환경에 다닌다.
 - 영계를 보면 좋은 집을 자기 집으로 삼아 거하고 있다.

- 혼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높은 단계를 배우고 깨닫게 된다.
 혼은 하나의 육에 속한 존재이면서 영에도 속한 존재체로서,
 영과 육의 매개체다.

혼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로 간다.

성경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 하였다.

(전 3:20~21)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도 하나의 영체다. 육에 속한 영체다.

육체는 다 살고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면 죽는다.

그것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혼체는 영에 속하여서 없어지지 않고,

육이 행한 대로 형성되고 변화된다.

육의 행위로 구원받은 혼, 구원 못 받은 혼으로 좌우된다.

그리고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영의 세계에 간다.

이같이 자기 영과 혼도 하나다.

두 존재체는 하나도 되고, 두 개 존재체도 된다.

항상 자기 영·혼·육은 하나다.

고로 영도 혼도 육도 흠 없이 만들어야 한다.

모르면 못 만든다. 알아야 만든다.

○ 혼의 생각은 자기 육의 생각과 거의 같다.

고로 혼의 생각과 행실을 보고

육의 행실도 고치고 다스리라는 것이다.

육의 행실, 말, 모든 것은 혼의 세계에서 반응한다.

자기 육의 생각 마음 심정까지

혼이 그대로 말하고, 행하기도 한다.

꿈에 자기 혼의 행실을 보인다.

혼을 꿈에나 영계에서 보면

육이 생시에 가진 마음 그대로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므로 육신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공적을 세워야 혼도 그같이 변화된다.

행한 대로 혼이 형상을 입는다.

육의 행위 따라 영계에서 혼이 활동한다.

육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혼이 사랑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비유로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혼이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보여 주는 계시다.

혼은 육에 속해서 거울에 육의 반응을 비춤같이 행한다.
 고로 혼을 거울삼아 육신의 행위를 고쳐서
 빛나는 영으로 만들기다.

(말씀 마쳤습니다.)